

칸트철학 다이어그램으로 본 환경미학 연구

- 환경과 정원의 관계 고찰 -

이윤정
디자인연구소 헨카 대표

1. 서론

조경이라는 학문의 역사는 약 50년으로 타 학문에 비해 짧으나, 그가 포함하고 있는 영역은 자연, 예술, 철학, 종교, 역사, 등 너무나 광범위하다. 더욱이 최근에는 환경문제의 대두로 인하여 환경문제까지 함께 다루어야 하는 험난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또한 모든 분야는 각각의 특성과 성질을 가지고 그 목적을 달리하고 있는데, 조경은 그 각각의 분야를 모두 다룸으로 인해서 그때그때마다 다른 상황적 판단을 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가 되어버렸다. 예를 들어 환경이 추구하는 생물의 다양성과 정원이나 공원의 관리라는 측면이 정면으로 상충되는데 안전을 위해서는 생물의 다양성을 포기해야만 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위해서는 안전을 포기해야만 한다. 이는 비단 조경계만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모든 학문분야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환경이라는 문제를 대함에 있어 다소 문제가 될 만한 모호한 개념화를 하고 있음이 종종 발견되고 있다. 다시 말해 자연 환경보전이라는 개념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들이 환경이라는 맥락 안에 같이 뒤섞여버리고 말았는데, 왜 이러한 양상이 되었는가에 대해 칸트의 철학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즉 인간행위의 최종적판단은 결국 철학에 의해 내려지므로 철학이 필요하나 판단력에 관한 철학은 미학이라는 분야로 발달이 되었으므로 미학에 대한 개념을 수학적으로 표현해 보고자 한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연구방법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물상은 크게 자연과 예술로 나뉜다. 여기에서의 구분의 기준은 인간이 만든 것과 인간이 관여하지 않은 것이 그 기준이다. 예술의 근원은 도구이다라고 한 하이데거의 정의가 이 기준의 근거가 되었는데, 예술, 공예, 인공지능 등의 말이 모두 하나의 어원을 이루고 있는 점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 칸트는 자연과 예술을 무엇이다 하고 직접적으로 정의를 내리지는 않았으나, 이와 관련된 것으로서 숭고미라는 것을 언급하였고, 칸트의 대표적 세 가지 개념 즉, 진선미의 개념 중 미라는 개념을 예술을 하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것을 통해 예술을 설명하였다고 볼 수 있다. 칸트는 숭고미를 불쾌하나 기분 좋은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거기에서 우리는 자연의 순환이란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인간은 자연 앞에서 이러한 감정을 느낀다. 그리고 위 두 물상과 인간의 철학을 관계화 시켜보면 아래와 같은 다이어그램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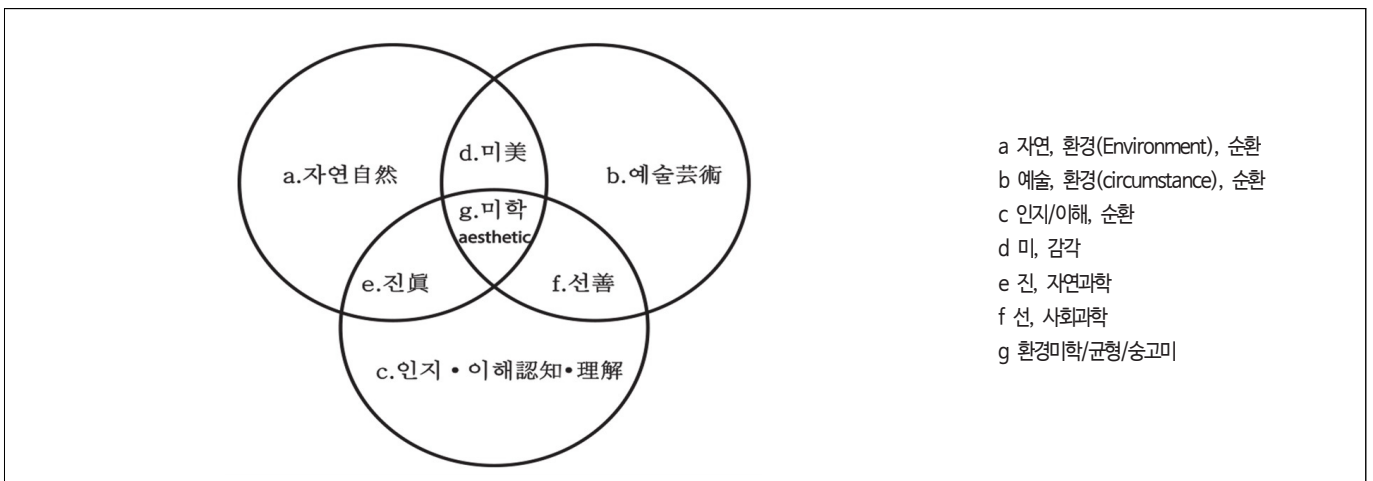


그림 1. 칸트 미학의 다이어그램 개념도

칸트의 철학을 다이어그램화함으로써 수학적개념으로 표현하고자 한 이유는, 자칫 어렵게만 느껴지는 그의 철학적 개념을 도표화시킴으로써 이해가 용이하고, 각 개념의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만일 모든 세상의 개념을 이 도표 안에서 혹은 이 구체 안에서 좌표화가 가능하다면, 우리는 철학이라는 학문을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철학적 개념을 좌표화시키는 것은 새로운 학문적 연구방법으로 보인다. 사실 모든 철학은 어떤 개념이나 용어가 이 다이어그램 안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지를 말로 설명하는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미학에서는 환경이라는 것이 내포한 포괄적인 형태로 인해 이 도표의 전체적인 구성만을 말할 수 있는데, 이 도표에서 가시화되어 나타나지 않은 환경의 중요한 성질은 바로 순환이다. 즉 다시 말해 자연의 영역은 자연의 영역대로 순환을 하고, 예술은 예술의 영역대로 순환을 하며, 이해는 인간의 두 뇌활동을 통해 인지하고 이해한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구분하고 있는 학문의 영역은 크게 자연과학분야와 사회과학분야인데, 이들은 모두 인간의 인지와 이해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자연과학은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 대개는 자연의 법칙을 진실로 구분짓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사회과학은 선의 영역으로 인간의 행동을 위한 선한 노력들을 이 영역의 학문으로 구분지을 수 있다. 또한 미의 영역은 인간의 동물적인 영역으로 감각의 영역이며 인간은 대체로 미를 의식할 때 처음에는 눈으로 보이는 것을 감각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근거한다. 또한 우리는 이 개념도를 통해 자연과 예술이 갖는 환경의 성질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자연이 갖는 환경의 성질은 자연환경(environment)적 성질로서 인간과는 관련이 없는 순환이고, 예술이 갖는 환경의 성질은 상황적 환경(circumstance)이라는 사실이다. 즉 상황적 환경이란 인간이 만들어낸 예술에 의한 환경이다. 그러므로 이 상황적 환경이란 바로 문명을 의미하기도 한다. 환경을 이 두 가지로 구분하여서 판단해야 하는 이유는 이 각각의 환경이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다. 예술에 있어서의 순환이란 제조와 판매를 통해 발생하는 경제순환이며, 그를위해 만드는데, 인간이 만드는 모든 것은 자연을 재료로 하므로 필연적으로 환경파괴의 행위를 동반한다. 그러므로 예술적 환경 행위를 통해 자연적 환경보전을 추구한다는 것이 모순으로 상충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칸트는 진선미가 모두 합해졌을 때 비로소 가장 커다란 아름다움이며 보편적인 아름다움이 되고, 그것이 숭고미라고 하였다. 진선미 중에 이해의 영역을 벗어나는 미의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 미학이라고 하였을 때, 미학이란 감각적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러나 그 판단은 단순한 좋고싫음을 기준으로 해서 안 된다고 하였으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칸트는 미학이 갖추어야 할 요소로 무관심적 관심, 목적 없는 합목적성, 합리성, 공통성이라는 네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이 네 가지 요건에 부합되고 이를 순환하고 있는 물체의 운동성과 관련하여서 생각해보면 그 운동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에너지와 마찰을 제외하고 본다면 나머지는 균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환경에 있어서 숭고미는 순환을 유지시키는 우주의 힘, 즉 에너지이며, 우주의 힘이 우주의 법칙이자 미이며, 그 미의 판단은 미학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균형에 대한 판단이 환경미학의 본질이며, 균형이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환경문제의 최종요 가치라 할 수 있다.

3. 연구결과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조경계는 지금 환경과 관련하여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환경영향평가는 자연생태에 관한 영향평가에 치우쳐 있는 경향을 보인다. 다시 말해 환경을 평가함에 있어 어느 편을 들 것인가 하는 모순을 피하기 위해 자연생태 영향만을 평가하는 국소적 평가에 그치고 만다는 사실인 것이다. 인간 삶의 영위를 위해서는 예술적환경을 지속하게 해야하고, 예술적 환경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연적 환경의 파괴가 동반된다는 사실 앞에서 말이다. 한 환경주의자는 인간은 지구에 있어서는 안된다는 극단적인 표현을 쓰기까지 하였으나 과연 인류는 지구환경을 위해 멸종의 길을 택할 수 있을까?

조경이라는 분야의 성질상, 자연을 다루어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분야라는 점에서 조경은 직접적으로 환경을 대해 왔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서 녹지를 관리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조경은 줄곧 자연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철학적으로 말하면 조경가는 자연을 다루는 사람이지만 자연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다. 철학적 개념으로 보았을 때 자연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므로 말이다. 그리고 철학적 개념하에서는 정원은 자연이 아니고 예술이다. 정원이란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의 산물로 문명과 늘 함께 해왔다. 그러나 자연에 대한 철학의 차이로 각 문명은 다른 형태의 정원의 형식을 취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전통정원은 자연과 예술의 차이를 철학적으로 분명히 인지하고 대해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행히 조경에서는 자연과 예술과 철학을 모두 학문적으로 배우고 가르친다. 이 점은 조경이 이미 환경미학적 토대를 어느 정도 갖추었다는 말이기도 하다.

다만 환경미학적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우리가 추구해야 할 판단의 근거는 균형으로 삼아야 하고, 그 균형미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척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 다이어그램의 각 부분을 수치화시키는 일이 가능하다면 환경과 개발이라는 면에서의 목표를 수치화시키는 일도 가능할 것이며, 상황적 판단 없이 객관화된 각 개발행위에 적당한 경계선을 제시해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를 동양철학, 특히 한 국철학과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이는데, 다이어그램상의 이 세 가지 요소를 수치화시키고 있는 한국철학이 어떠한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증명해 낼 수 있다면 그것도 서양철학과 동양철학의 접목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양철학에서의 수치는 개념적인 수치이므로 목표치와 같은 실현가능한 수치화를 위해서는 그동안의 학계에서의 연구노력을 기반으로 한 종합화와 객관화 작업과 전문가들의 깊은 통찰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균형을 판단할 수 있는 수치, 바로 그것이 환경미학이 지향해야 할 목표라 할 수 있으며 환경미학이라는 학문이 가진 가치로 보인다.

참고문헌

1. 칸트 판단력비판 1·2.